

글로벌 모바일클러스터 구축

지식경제부는 1월 14일 구미에서 모바일 관련 산·학·연 대표 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모바일 클러스터 구축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선포식에 참석한 산학연 관계자들은 스마트폰 등 세계 모바일산업이 단말기능에서 융·복합기능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모바일산업의 메카인 대구·경북의 「글로벌 모바일 클러스터」를 발판으로 우리나라 모바일산업을 세계 1위로 도약시킬 것을 다짐했다.

모바일 클러스터 구축비전 선포식

최경환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위기 속에서도 세계시장 점유율 30% 돌파 등의 성과를 거둔 휴대폰 업계를 크게 격려하고, 2010년은 애플 아이폰 등 스마트폰의 도전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응전의 한 해가 될 것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으로서 이동통신산업 생태계에서 개방(開放)과 협력(協力)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콘텐츠 및 개인 SW개발자의 손쉬운 참여, 산업간 제휴 등 플레이어간의 협력을 말한다.

이어 이루어진 '차세대 휴대폰 산업 발전전략' 보고에서 전상헌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주요 정책과제로서, 먼저, 국내 휴대폰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하기 위하여 국내최대 생산기지인 대구·경북에 「글로벌

모바일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하고 향후 5년간 총 2,253억원을 투자키로 하였다.(국비 1,574억원 포함)

차세대 휴대폰산업 발전전략

연간 18조원의 단말기를 생산하여 국내 생산액의 51.1% 차지(GSM 단말기는 63.7%)하고, 대구, 구미, 경산 등에 441개 모바일 기업과 로봇, 의료, 자동차, 섬유 등 16개 관련기관이 밀집했다.

모바일 기업의 제품개발 순주기를 지원하기 위해, 대구는 모바일 융합 제품화 기술개발 및 연구기반 조성, 경북은 모바일 융합기술의 종합테스트환경을 구축을 담당한다.

또한, '기술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 하기 위해 4세대용 베이스밴드 모뎀, 저전력 기술 등에 대하여 휴대폰 제조 대기업과의 수요자 참여형으로 향후 4년간 1천억원 이상을 투입해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최근 ETRI는 '97~'99년 개발한 3세대 이동통신 표준특허 7건에 대해 이를 무단 사용한 노키아 등 전 세계 22개 제조사를 상대로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3억달러의 로열티 수입을 예상한다.

스마트폰 기반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응용SW 개발 촉진, 핵심 비즈니스 서비스 발굴·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마트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분야가 앞장서 스마트폰 이용을 촉진

함으로써 관련 시장을 창출해야 하며, 무한정액제, 플랫폼 개방 등 제도적 기반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생산기지의 고부가가치화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스마트폰 급속 확산, 4세대 표준화 등 휴대폰 산업 패러다임이 급격히 바뀌고 있어 국내 생산기지의 고부가가치화가 시급한 것이다. 국내 기업들은 가격경쟁력과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중저가폰의 해외생산 비중이 크게 증가한다.

대구·경북은 국내 최대 휴대폰 생산기지로 관련 기업과 모바일 융합을 위한 관련기관이 밀집해 있어 차세대 휴대폰 대응에 최적지이다. 연간 18조원의 단말기를 생산하여 국내 생산액의 51.1% 차지(GSM 단말기는 63.7%)하며, 대구, 구미, 경산 등에 441개 모바일 기업과 로봇, 의료, 자동차, 섬유 등 16개 관련기관이 밀집했다.

모바일 융합 시장선점 위해 세계 주요국들도 모바일 클러스터 구축한다. 핀란드 오울루 테크노파크, 일본 오코스카 리서치파크, 중국 4G 테스트베드 등이다.

5년간 총 2,253억원 투자

추진사업은 5년간('10~'14년) 총 2,253억원을 투자한다. 대구의 경우, 모바일 융합 제품화 기술 개발 및 연구기반을 조성한다. 대구TP모바일융합센터에 '10~'14년 총 903억원(국비 704, 지방비 118, 민자 81), '10년 국비 30억원이다.

경북의 경우, 차세대 휴대폰 및 모바일 융합기술의 종합테스트환경을 구축한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10~'14년 총 1,350억원(국비 870, 지방비 260, 민자 220), '10년 국비 80억원이다.

시너지 창출 방안으로 두 사업간 체계적인 역할분담으로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 테스트, 사업화 마케팅 등 제품개발 전 주기에서 One-stop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대경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축 등과 연계를 강화한다. 기대효과로 기업 테스트비용 연간 500억원 이상 절감, 단말기 30일 조기 출시된다. 모바일 매출액 10% 증대, 신규 일자리 5000개, 신규 기업 60개 창출될 것이다.

세계휴대폰시장에서 2위

휴대폰산업의 위상을 보면, 총수출의 8.5%, IT 수출의 23.7%를 차지하는 국가 핵심 주력산업이고, 휴대폰 제조 3사와 630여 1차 협력업체를 통해 47만 명의 인력을 고용한다. 한국은 전세계 시장의 32.5%('09년3분기)를 점유하고 있는 세계 2위의 휴대폰 강국이다.

수출 비중에서 2009년 말 현재, 선박류가 450억불로 12%, 반도체가 310억불로 8.5%, 휴대폰이 309억불로 8.5%, 자동차가 254억불로 7.0%, 액정디바이스가 234억불로 4% 등이다. 세계시장점유율('09.3Q)에서 노키아가 37.3%, 삼성전자가 20.7%, LG전자가 10.9%, 소니에릭슨이 4.9%, 모토로라가 4.7% 등이다.



휴대폰산업의 성장은 1995년 세계 최초 CDMA개발로 우리나라가 통신 강국 진입의 토대를 마련했다. 2004년 세계 최초 와이브로 개발을 통해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의 기반을 확립했다. 지속적인 프리미엄 전략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 개선 및 고기능폰 시장을 주도한다.

스마트폰의 급성장

위기와 도전 측면에서는, 먼저 스마트폰의 급성장에 따른 휴대폰산업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아이폰에 수요 선도층을 상실하여 선도기업의 위상에 타격이 우려된다. 얼리어답터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전 세계 14.2%)하고, 국내 아이폰 출시 한달만에 20만대가 판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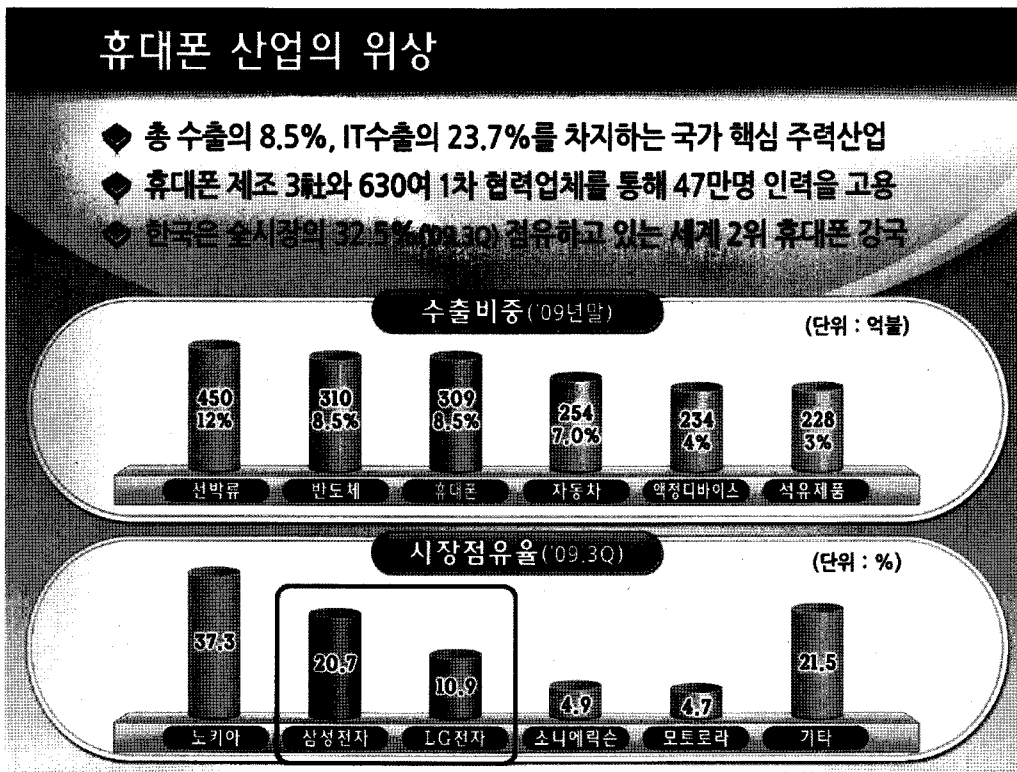
산업의 주도권이 이통사에서 제조사와 콘텐츠 공급사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아이폰, 블랙베리 등

스마트폰의 성공모델의 경우 제조사가 이통사와의 서비스 계약을 주도한다. 다양한 SW, 편리한 사용 환경, 저전력 기술 등이 제품 차별화 요소로 부각된다. 아이폰은 앱스토어를 통한 다양항 응용SW를 제공하고 정전식 멀티터치 기술 등이 성공요인이다.

SW개발의 성공비즈니스 모델

둘째, 스마트폰의 등장에 따른 산업과 생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SW, 콘텐츠 개발자의 성공 비즈니스 모델의 증가이다. 국내 게임개발자는 개발한 게임을 앱스토어로 판매하여 7억원의 수익을 올린 사례가 있다.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이 크게 변화하기 시작한다. 다양한 휴대기기를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되고, 유선인터넷의 다양한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트위터, 메일을 통해 실시간 소통 및 업무 처리



를 할 수 있다.

모바일 쇼핑, 광고 등 새로운 서비스와 사업모델이 등장한다. CES2010을 통해 의료, 자동차 등 스마트폰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했고, 모바일 광고시장이 급성장할 전망이다. 2009년 3.9억불에서 2014년 13억불로 증가할 것이다.

셋째, 휴대폰산업의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에 의한 무선 데이터통신 급증으로 이에 대비한 4세대 이동통신 표준화 경쟁이 치열하다. 삼성, 인텔, 노키아 등 기술이 표준경쟁중이다.

PC와 휴대폰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모바일 기반의 IT서비스 확산 등 정보통신산업 전반의 모바일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것이다. 인텔핀을 사용한 스마트폰, 애플의 이북 출시 등이다. 지식가치와 창조적 혁신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개방성, 글로벌 협력이 성공의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 글로벌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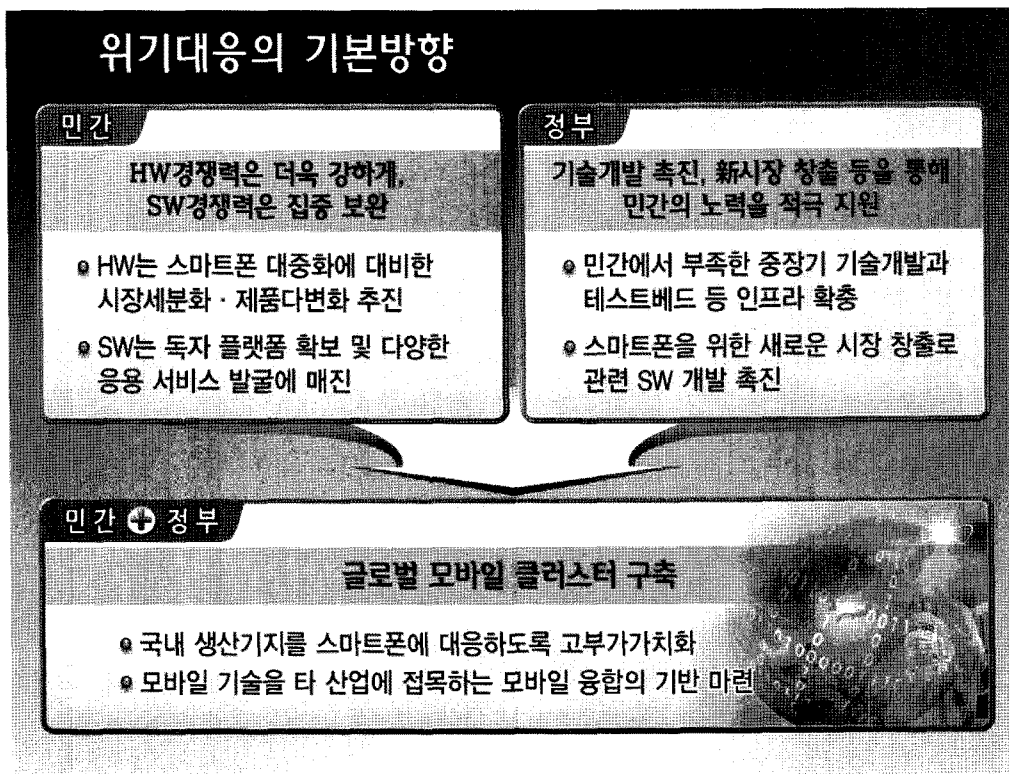
기업들은 HW, SW, 서비스의 트라이버전스 전략을 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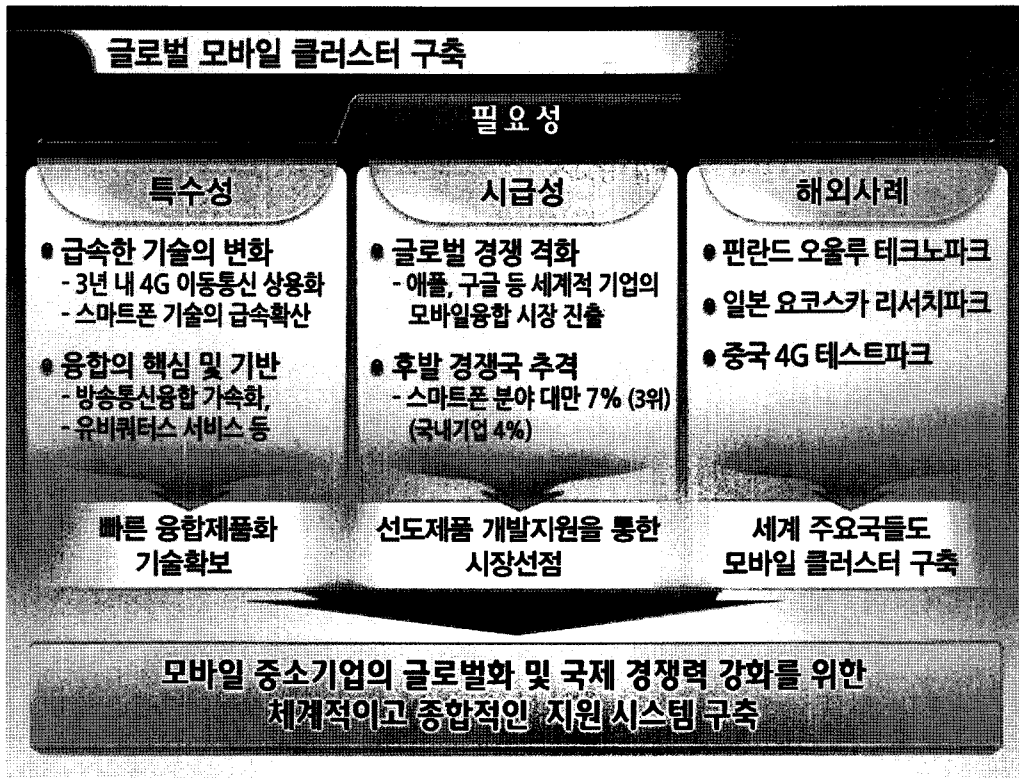
스마트폰 신드롬

스마트폰 신드롬에 대해 살펴보면, 스마트폰의 성장 가능성이 여전히 높으나 약간씩 하향 조정되는 상황이다. 2009년 9월 스마트폰 비중의 전망은 2009년 15.3%에서 2013년 42.8%였으나, 2009년 12월 전망에서는 2009년 14.2%에서 2013년 37.6%이다.

스마트폰(14.2%)이 기능폰(62.3%)을 대체하여 주류(50%이상)가 되기에는 복잡한 사용법 등 난관 해소를 위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수치상 14.2%인 스마트폰을 얼리어답처 대부분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나, 노키아의 초기 스마트폰이 상당수 차지하고, 애플 아이폰은 2.6%('09년3분기)에 불과하다.

애플아이폰의 한계로 외주 생산(대만 폭스콘)에 따





른 시장 요구의 대응이 미흡한 편이다. 편리한 인터페이스 외에 단순한 HW이다. 폐쇄적인 운영체제이다. 수익 분배에 대한 이통사의 반발이 있다. 개발자가 70%, 애플이 30%이다.

국내 업체들의 대응으로, 자체 생산으로 시장 요구에 즉시 대응할 수 있다. 고기능폰의 다양한 HW적인 강점을 활용하고, 여러 운영체제 기반의 다양한 모델을 출시한다. 이통사 밀착형 사업 전략으로 대중화에 대비할 수 있다. 삼성은 2010년 스마트폰 40종, 2천만대의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민간 HW경쟁력 더욱 강하게

위기 대응의 기본 방향으로, 민간에서는 HW경쟁력은 더욱 강하게, SW경쟁력은 집중 보완하는 것이다. HW는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대비한 시장 세분화, 제품 다변화를 추진한다. SW는 독자 플랫폼 확

보 및 다양한 응용 서비스 발굴에 매진한다.

정부에서는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신시장 창출 등을 통해 민간의 노력을 적극 지원한다. 민간에서 부족한 중장기 기술 개발과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스마트폰을 위한 새로운 시장 창출로 관련 SW 개발을 촉진한다.

민간과 정부의 협력으로 글로벌 모바일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국내 생산기지를 스마트폰에 대응하도록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모바일 기술을 타 산업에 접목하는 모바일 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글로벌 리더십의 확보

주요 정책과제로는 첫째, 기술의 글로벌 리더십의 확보이다. 최근 패러다임 변화는 핵심기술의 자립적 기이며, 제품 차별화 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필요

성이 있기 때문에, 4세대용 베이스밴드 모뎀 등 핵심 기술과 저전력, 고기능의 기반기술 개발과제를 추진할 것이다. '10~'13년간 1천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수요자 참여형으로 개발한다. 고효율 전력 증폭기, 자기 무선충전, 계측기 등 저전력, 고기능 기술을 추구한다.

스마트폰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가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이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응용 SW와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고 4세대용 킬러서비스 기술 및 시장을 선점하는 과제를 추진한다. 3D, 오감인식 등의 기술 개발을 통해 증강현실의 기술 차별화를 시도한다.

개방 통한 시장활력

둘째, 개방을 통한 시장 활력을 강화한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 저조로 새로운 서비스 시장 선점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공공분야 스마트폰 이용 촉진으로 와이브로 활성화 및 서비스시장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음성위주의 폐쇄적인 시장 운영이 국내 스마트폰 대응의 부족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제 개편 등 무선 데이터통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세계 일류 산업인프라를 조성한다. 중소기업의 다양한 제품 개발을 지원할 테스트 집적 시설이 필요하기 때무녕 차세대 휴대폰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한 종합시험센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국내기업들은 1-2년 단기 예측만 연구하므로 미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입자 이용 행태를 토대로 휴대폰의 중장기 진화 방향을 연구하는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넷째, 글로벌 모바일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필요성으로 특수성, 시급성, 해외사례를 들 수 있다. 특수성으로 급속한 기술의 변화, 융합의 핵심 및 기반 등 빠른 융합제품화 기술 확보가 필요한 것이다. 시급성으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후발 경쟁국이 추격하는 등 선도제품의 개발 지원을 통한 시장 선점이 필요한 것이다. 해외사례로 핀란드 오울루 테크노파크, 일본의 요코스카 리서치파크, 중국 4G테스트파크 등 세계 주요국들도 모바일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바일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추진과제로 대구의 경우 모바일 융합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대구TP모바일융합센터에서 2010년~2014년까지 903억원으로 모바일 기업의 선제적 핵심기술 개발 및 시장 선점을 지원한다. 경북의 경우, 모바일 융합 기술센터 구축 사업이고,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2010년~2014년까지 1,350억원으로 국내 최대의 모바일 단말기, 부품 소매 시험 평가 및 테스트를 지원한다.

시너지 창출 방안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역할 분담으로 윈스탑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기대 효과로 모바일 매출액 10% 증대 및 연간 테스트 비용 5백억원 이상을 절감하고, 신규 모바일 단말기 해외시장 30일 조기 진출한다. 신규 일자리 5천개 및 신규 기업 60개를 창출하고, 모바일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모바일 중소기업을 육성할 것이다.

